

완전치유 완전제자 -복음으로 여는 빌레몬서- 여호수아 2:1-6, 빌레몬서 1:10-12

정윤돈 목사님

* 수2:1-6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싯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자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의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여 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 몬1:10-12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므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심복이라

“준거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과 진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가장 가치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하늘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이 땅에 떨어져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 성취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영육 간에 절대불가능한 부분들이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직장과 현장, 특별히 후대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올인하며 생명 걸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까. 오직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절대계획과 미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당장 실천하고 응답 받아야 할 나의 말씀, 레마를 발견하는 은혜의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대이다. ‘노키아’가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망해버렸다. 그리고 일본 가전기업도 문을 닫았다. 가장 큰 원인이 라디오도 TV도 스마트폰으로 들어갔는데 준비를 못한 것이다. 그것보다 더 급변하는 것이 AI시대이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형상, 인간성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 질 것이다. 앞으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 AI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나라는 속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할 시간표 속에 와 있다. 예를 들면 휴게소에 가면 로봇이 바리스타를 하고 있다. 즉 바리스타 3명 중 2명은 잘리는 것이다. 저 군대에 있을 때는 군인들이 모내기를 했다. 그러나 지금은 기계가 모든 과정을 대신하고 있다. 100명이 했던 일을 기계 하나가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AI화, 디지털화, 미디어화 시키지 않으면 로봇보다 못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시골 교회에 가면 성가대가 없다. 앞으로 로봇이 성가대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 한두 명의 로봇관리자를 제외하고는 편의점 알바들도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이 미리 준비하고 건강관리를 잘 해야 한다. 앞으로 애완견도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다.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는 말이다. 단순화된 노동, 디지털하기 쉬운 것들, 많은 데이터가 있는 직업들은 대체되기 쉽다. 판사, 의사, 교사들도 다 대체될 것이다.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잘 없다. 진짜 좋은 학교만 남을 것이고 아이 한명, 한명을 케어하며 달란트를 찾아주는 학교가 남을 것이다. 정말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아이의 미래를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교회

주일학교에서 만들어야 한다. 아이들 달란트를 찾아주고 경제준비도 시켜야 한다. 여러분도 모르게 직업과 소득이 사라져버리는 시대가 급격히 올 수 있다. 가족도 파괴되고 메마르고 황폐해질 것이다. 이런 시대일수록 인간성, 영성, 복음 안에서 서로 돕고 이끌어 줄 수 있고 함께하며 건강관리, 소득관리도 해주고 서로 품어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복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필요하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빌레몬서도 이 이야기와 관련이 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로봇 반려견보다 못한 인간이 된다. 그래서 인간성을 회복하고 변화되어 유익한 사람, 심복으로 무익한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인간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인간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소중하다. 여러분이 100세까지 건강관리를 안 하면 요양원에서 30년 동안 누워있어야 한다. 소중한 인간이 누리지 못하게 된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운동은 하루를 짧게 만들지만 인생을 길고 건강하게 만든다. 운동은 급한 일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지금은 그냥 넘어가도 된다. 그러나 중요한 일이 있다. 경제공부, IT공부, AI공부가 지금은 넘어갈 수 있어도 길게 보면 아주 중요한 일이다. 게으르지 말라. 창조주 하나님의 창의력을 가져라.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과 가문을 사랑하고 나와 내 인생을 사랑한다면 건강관리, 공부, 영성관리, 인간관계관리를 할 것이다. 참된 영성과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원하는 나를 죽이는 방향으로 간다. 인간은 사지가 멀쩡해도 영적인 것이 죽어버리면 영, 혼, 마음이 죽어버려서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서 귀신이 보이고 재앙이 와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예배는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것이다. 찬양과 기도도 그렇다.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법사에 잘되고 영이 잘 되어야 하나님과 소통하고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해서 완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영을 살려라. 하늘보좌가 움직이고 모든 것이 열리고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만민이 이루어질 정도로 영이 깨어야 한다. 조용기 목사님도 제 5의 영성을 이야기를 하셨다. 천막예배를 할 때부터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몇 번이고 부도가 났다. 그 바다가 누워 망하지만 않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 가득 차고 몰려오는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그것이 기도와 영적 능력이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가득 차고, 멋있게 살아가고, 풍요롭게 살고, 다른 사람을 돕고 살아가는 그림을 계속 그려라. 그게 영력이다. 마음속에 근심하고 염려하면 미래를 계속 차단하고 막고 저주받는 인생으로 만든다. 염려, 근심, 걱정거리는 0.1초 만에 날려버려라. 부자들은 잘될 것만 생각한다. 미래를 미리 준비하고 그럴 줄 알아서 대비를 하기 때문이다. 욕심 부리지 말고 5년, 10년 공부하면서 경제도 인턴십을 해야 한다. 성경에 다 나와 있다.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공부만 해도 그 부분을 열어주신다. 지혜와 만남을 열어주신다.

본문으로 들어가면 라합이 나온다. 라합은 직업이 기생이었지만 구원의 여호와를 발견하고 완전히 변화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 아무리 부족해도 인간 자체가 귀중한 것을 믿어라. 모든 사람이 부족하다. 그러나 아무리 못난 인간도 타락한 인간도 기계 만 대보다 중요하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부모, 형제, 자녀가 아주 못나니까 다 없애버리고 정죄할 것인가? 아니지 않는가. 우리는 다 살려야 한다. 주인공이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이 축복받고 응답받으면 아무 것도 관계가 없다. 응답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역이 되고 여러분이 축복받으면 된다. 그러려면 미래를 아주 꼼꼼하고 세심하게 그려나가면 된다. 가장 쉬운 방법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다. 그 안에 다 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면 된다. 오네시모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에 대한 집중훈련을 받고 유익한 사람으로 완전한 제자로 거듭나게 되었다. 여러분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바란다. 복음 안에서 ‘절대불가능한’ 사람들도 무엇이든 지 ‘절대가능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절대기능의 ‘완전한 제자’의 응답 속으로 들어간다. 여러분은 부자가 되고 행복하고 문제해결하고 싶지 않은가. 예배 속에 있다. 그리스도로 결론내고 끝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에서 작은 것이라도 붙잡고 살면 행복해진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소중하다. 여러분이 생명을 살린다면 세계복음화한다. 237나라 5000종족을 살리려는데 아무 것도 도전을 안하면 안된다.

오늘은 빌레몬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기록한 옥중서신 중에 중 하나이다.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4편이다. 빌레몬서는 도망한 중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빌레몬에게 부탁한 바울의 편지이다.

1. 큰 첫 번째에서는 빌레몬서를 쓰게 된 배경과 등장한 인물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빌레몬서의 기록배경이다.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만나 복음으로 변화된 오네시모를 위하여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이다. 이 오네시모는 콜로새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던 자신의 주인 빌레몬에게 큰 피해를 주고 로마까지 도망 온 노예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다시 만나 유익한 자요 심복이라고 인정받을 정도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이다.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작정, 예정 속에서 은혜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로마법에 따르면 도망한 종은 사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주인의 용서와 사면이 없으면 항상 불안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되었던 것이다. 도망한 노예는 얼굴에 낙인을 찍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빌레몬에게 부탁의 편지를 쓰게 된 것이다.

(2) 다음은 중요한 등장인물들이다.

1) 첫째로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이다.

① 그는 자기의 집을 미션홈과 지교회로 세운 중직자였다. 빌레몬서 1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 1장 2절에 보면 “자매 암비아와 함께 병사된 아킵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 나오는 암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이고, 아킵보는 그 이름이 ‘마부’라는 뜻이기 때문에 말을 돌보는 종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마부를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킵보’라고 말하고 있다. 즉 빌레몬은 이렇게 온 가족과 노예들까지 복음의 제자로 양육했던 모델적인 중직자였던 것이다.

② 빌레몬은 자신을 배신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였던 사람이었다. 전승에 의하면 빌레몬은 바울의 부탁을 받아들여(고전7:21)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고 그에게 신분의 자유까지 주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2세기 초에 활동했던 교부 이그나티우스는 오네시모가 나중에 디모테를 이어 에베소교회의 감독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③ 빌레몬은 자신을 양육한 목회자의 어려운 부탁을 수용했을 뿐 아니라 그 이상으로 실천했던 믿음의 제자였다. 제자가 되면 담임목사에게 철저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어디를 가든 유익한 사람, 심복이 될 수 있다. 교회는 주유소와 같은 곳이다. 세차하고 기름 넣고 나가서 일하는 것이다. 본론은 밖에 나가서 하는 것이다. 여기서 헛갈리지 마라. 어디를 가든 순종하고 빛을 비추어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곳이 교회다. 교회는 본론이 아니다. 여기서 스트레스를 받다 포기하지마라.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인턴십의 과정이다. 빌레몬은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의 말에 순종했던 것이다. 빌레몬서 1장 19절에 보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대단한 말씀이다.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게서 받은 복음을 그 어떤 세상적인 것보다 소중한 은혜의 빛, 구원의 빛으로 생각할 정도로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다. 가정 안에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분께 감사해라. 복음 안에 있으면 누구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 복음이 아니면 형제 간에도 이웃 간에도 원수 같은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복음 밖에 없다.

④ 즉 빌레몬은 세상의 제도와 법과 육신적인 이익, 손해까지 뛰어넘을 정도로 복음으로 완전히 치유받은 완전한 제자였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사랑했다. 복음을 전한 그 분들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란다. 오직 이 복음이 최고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지금 많은 교회가 있지만 복음이 희미하다.

⑤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거듭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는 그가 말씀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집에서 교회를 하고 많은 종을 부릴 정도로 부자였지만 겸손히 에베소까지 가서 말씀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다. 에베소에서 콜로새까지는 약 100KM 정도의 거리였다. 훈련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없다. 집중적으로 훈련을 계속 받아야 한다. 그래야 살아난다. 복음이 잘 정리되고 전도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 받을 때 완전복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2) 두 번째 인물은 사도 바울이다.

① 바울은 빌레몬에게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는 관계였지만 강요하지 않고 겸손하게 부탁하였다. 빌레몬서 1장 8절에 보면 ‘마땅한 일로 말할 수도 있으나’, 1장 9절에 보면 ‘도리어 사랑으로써 간구하노라’라고 말하고 있다. 리더일수록 겸손해야 한다.

②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킨 전도자였던 것이다. 결국 사도 바울은 도망자였던 오네시모를 ‘아들 같은’(몬1:10) 사람으로, ‘무익했던 사람’(몬1:10)을 ‘유익한 자로’(몬1:12), ‘심복으로’ 변화시킨 참된 전도자였던 것이다. 여러분도 만나는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처음에는 안 변한다. 그래서 사랑이 필요하다. 그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해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계속 전도하고 양육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③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다. 즉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역을 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서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화평케 하는 사역을 하였다. 우리도 이러한 사역을 담당해야 하겠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2. 큰 두 번째에서는 빌레몬서를 통하여 붙잡아야 할 영적인 비밀과 복음적인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

(1) 첫째는 거듭난 주인 빌레몬이다. 빌레몬은 로마제국시대에 권력자였고 부자로서 교만할 수 있었지만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다. 또한 불신앙과 불신종의 사람에서 순종과 복종의 중직자로 변화되었다. 용서하지 못했던 엄격한 사람에서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직장현장에서 램넛 7명과 같이 리더의 심복이 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현장에 가면 미친 사람들을 만난다. 뛰어넘지 못하면 리더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 이상한 사람이 가족일수도 목회자일수도 있다. 그것은 아무 관계없다. 여러분이 주역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다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 영적인 것이 회복될 때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적인 미소가 나온다. 예배로 끝내고 답을 얻고 거듭나라. 강단에서 꾸지람 듣고 끝내라.

(2) 두 번째로 복음으로 거듭난 사도 바울이다. 사도 바울은 가장 교만한 사람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복음의 제자로 변화되었다. 이기적인 사람에서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돕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렇게 변화되어야 한다.

(3)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것은 오네시모의 변화된 영적인 상태이다. 복음으로 변화되기 전 오네시모는 불만, 불평이 많은 사람이었다. 부정적인 사람이었다. 오네시모는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 즉, 겁 없이 만용을 부리는 사람이었다. 오네시모는 반사회적이며 개혁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오네시모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었다. 오네시모는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노예로 있던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의 재산을 도둑질하여 도망갔던 것이다. 그러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집중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완전히 거듭난 오네시모는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불만, 불평이 많은 사람에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는 사람에서 믿음을 심어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또한 그는 사람들과 사회의 죄에 대항하는 반사회적인 사람에서 그리스도의 용서의 복음으로 사회와 문화를 변화시키는 완전한 제자로 거듭나게 되었다.

우리가 앞으로 더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지혜의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진리의 사람, 자비, 인내, 절제, 책임감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감사의 사람, 창의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소통의 사람, 용기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도전하지 않고 안주하는 사람은 노예의 삶을 살게 된다. 악플이 많이 달리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여러분이 잘하고 성공하면 악플을 달지 선플을 달지 않는다. 그거 두려워서 아무 것도 안하면 노예생활한다. 그거 신경쓰지 말라. 악플 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하고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것이 문제이다. 힘을 얻고 도전하라. 시대가 달라졌다. 협력하는 사람, 통찰의 사람, 희망의 사람, 공감의 사람, 회복의 사람, 영성의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야 한다. 안 그러면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된다. 복음 안에서 완전히 거듭나서 영원토록 소중한 쓰임받는 완전치유 받아 완전제자가 되기를 바란다. 빌레몬서에 나오는 세 명의 제자들처럼 완전히 치유받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자로 변화되어 어디에서든지 인정받고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급변하는 이 시대에 모두 하나되어 참사랑과 참복음으로 지역, 민족, 세계를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고, 가정, 가문, 직장 어디를 가든 인정받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앞서가는 성도들과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으며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